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988
----------	-------

발의연월일 : 2021. 4. 6.

발 의 자 : 안순덕, 정덕영, 황영희,
이희창, 김종길, 홍성표,
임재근, 한미령

1. 주문

- 별첨 “결의안” 과 같음

2. 제안이유

- 무고한 미얀마 국민이 쿠데타 군부에 집단학살 당하고 국가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속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면담한 미얀마인들을 지명수배하는 등 민주주의 및 인권이 폭력 앞에 말살되는 현장을 모두 함께 목격하고 있음
- 유사한 민주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계민주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양주시의회가 미얀마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3. 보낼 곳 : 청와대, 국회, 외교부 등

4. 붙임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전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1일 기준, 민간인 최소 706명 사망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시위대 학살’에 대한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집계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이 중 최소 35명의 아이들이 살해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군부는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족주의 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부정선거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미 군부는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이 뒤따랐다.

군부는 맨손의 민간인과 아이들에게 실탄 조준사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로켓추진수류탄(RPG)과 같은 적군 살상용 중화기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경기도지사를 면담했다는 이유로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얀마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탄압과 희생에도 미얀마인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군부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CDM)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미얀마 대사는 군부에 의해 즉각 경질되었다.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미얀마 학생들은 ‘세 손가락’을 치켜들고 ‘한국처럼 쿠데타에 맞설 것’이라 시위하고 있다.

이에 풀뿌리민주주의 30주년을 맞은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폭거가 세계 자유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며, 민주주의 승리와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군부가 쿠데타를 즉각 철회하고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과 함께 국민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 4. 13.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